

## 결 정

2018 - 303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에너지경제 발행인 송 용 희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3. 서울경제 발행인 이 중 환

## 주 문

에너지경제(ekn.kr) 2017년 12월 26일자 「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 맞은 주사제서 '시트로박터균' 검출」 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12월 26일자 「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 맞은 주사제서도 '시트로박터 프룬디' 검출」 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12월 26일자 「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 검출 세균, 주사제서도 검출」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 이 유

1. 에너지경제, 서울신문,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에너지경제

에너지경제	연합뉴스
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 맞은 주사제서 '시트로박터균' 검출 기사입력   2017.12.26 15:15:57	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서 나온 균, 주사제에서도 검출 기사입력   2017/12-26 14:40
한상희 기자hsh@ekn.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a href="#">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에게 투여된 주사제에서도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이 검출됐다. 사망환아에게 투여한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부터 세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a>	<a href="#">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에게 투여된 주사제에서도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이 검출됐다. 사망환아에게 투여한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부터 세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a>

<p>질병관리본부는 26일 사망 환아에 투여된 지질영양 주사제에서 사망 환아에 발견된 동일한 유전형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됐으며 주사 준비 단계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추정된다고 밝혔다.</p> <p>이에 따라 질본은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협조해 지질영양 주사제의 오염경로를 추가조사 진행할 예정이다.</p> <p>질본에 따르면 사망 환아는 모두 중심정맥관을 통해 지질영양 주사제를 투여받고 있었다. 해당 주사제는 전체 입원 환아 16명 중 5명에 투여됐고 이 중 4명이 사망에 이르렀다.</p> <p>다만 질본은 감염과 신생아 사망의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행 중인 검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규명할 계획이다.</p> <p>신생아중환자실에 함께 입원했던 12명의 환아에 대한 미생물 배양검사 결과, 전원된 환아 9명(퇴원아 3명 제외)에 대한 혈액배양 검사와 전체 12명의 대변배양검사서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관련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p> <p><a href="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33706">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33706</a></p>	<p>뉴스1=&gt;(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맞은 주사제서 시트로박터균 검출(뉴스1) 기사입력   2017-12-26 14:46(뉴스1) 이하 연합뉴스=&gt;</p> <p>질병관리본부는 26일 사망 환아에 투여된 지질영양 주사제에서 사망 환아에 발견된 동일한 유전형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됐으며 주사 준비 단계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추정된다고 밝혔다.</p> <p>이에 따라 질본은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협조해 지질영양 주사제의 오염경로를 추가조사 진행할 예정이다.</p> <p>질본에 따르면 사망 환아는 모두 중심정맥관을 통해 지질영양 주사제를 투여받고 있었다. 해당 주사제는 전체 입원 환아 16명 중 5명에 투여됐고 이 중 4명이 사망에 이르렀다.</p> <p>다만 질본은 감염과 신생아 사망의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행 중인 검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규명할 계획이다.</p> <p>신생아중환자실에 함께 입원했던 12명의 환아에 대한 미생물 배양검사 결과, 전원된 환아 9명(퇴원아 3명 제외)에 대한 혈액배양 검사와 전체 12명의 대변배양검사서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관련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p> <p>jandi@yna.co.kr</p> <p><a href="http://news1.kr/articles/?3190079">http://news1.kr/articles/?3190079</a>(뉴스1) <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6/0200000000AKR20171226102500017.HTML?input=1195m">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6/0200000000AKR20171226102500017.HTML?input=1195m</a>(연합뉴스)</p>
---	--

2)서울신문

서울신문	연합뉴스
<p>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 맞은 주사제서도 ‘시트로박터 프룬디’ 검출 기사입력   2017-12-26 15:04</p>	<p>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서 나온 균, 주사제에서도 검출 송고시간   2017/12/26 14:40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맞은 주사제서 시트로박터균 검출 2017-12-26 14:46 송고</p>
<p>장주영 기자   사회일반</p> <p><a href="#">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에게 투여된 주사제에서도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이 검출됐다.</a></p> <p><a href="#">질병관리본부는 26일 사망 환아에 투여된 지질영양 주사제에서 사망 환아에 발견된 동일한 유전형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됐으며 주사 준비 단계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추정된다고 밝혔다.</a></p> <p>&lt;지질영양 주사제는 음식 섭취가 어려운 환자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주사제를 말한다.&gt;</p> <p><a href="#">이에 따라 질병은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협조해 지질영양 주사제의 오염경로를 추가조사 진행할 예정이다.</a></p> <p><a href="#">질본에 따르면 사망 환아는 모두 중심정맥관을 통해 지질영양 주사제를 투여받고 있었다. 해당 주사제는 전체 입원 환아 16명 중 5명에 투여됐고 이 중 4명이 사망에 이르렀다.</a></p> <p><a href="#">다만 질병은 감염과 신생아 사망의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행 중인 검</a></p>	<p>(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a href="#">뉴스1==&gt;</a></p> <p><a href="#">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에게 투여된 주사제에서도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이 검출됐다.</a></p> <p><a href="#">이하 연합뉴스=&gt;</a></p> <p><a href="#">질병관리본부는 26일 사망 환아에 투여된 지질영양 주사제에서 사망 환아에 발견된 동일한 유전형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됐으며 주사 준비 단계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추정된다고 밝혔다.</a></p> <p>&lt;연합 후속 기사, 뉴스1 기사 중 일부&gt;</p> <p><a href="#">이에 따라 질병은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협조해 지질영양 주사제의 오염경로를 추가조사 진행할 예정이다.</a></p> <p><a href="#">질본에 따르면 사망 환아는 모두 중심정맥관을 통해 지질영양 주사제를 투여받고 있었다. 해당 주사제는 전체 입원 환아 16명 중 5명에 투여됐고 이 중 4명이 사망에 이르렀다.</a></p> <p><a href="#">다만 질병은 감염과 신생아 사망의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행 중인 검</a></p>

<p>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규명할 계획이다.</p> <p>신생아중환자실에 함께 입원했던 12명의 환아에 대한 미생물 배양검사 결과, 전원된 환아 9명(퇴원아 3명 제외)에 대한 혈액배양 검사와 전체 12명의 대변배양검사에서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관련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p> <p>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226500068&amp;wlog_tag3=nave">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226500068&amp;wlog_tag3=nave</a>  <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226500068&amp;wlog_tag3=nave">r</a></p>	<p>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규명할 계획이다.</p> <p>신생아중환자실에 함께 입원했던 12명의 환아에 대한 미생물 배양검사 결과, 전원된 환아 9명(퇴원아 3명 제외)에 대한 혈액배양 검사와 전체 12명의 대변배양검사에서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관련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p> <p>jandi@yna.co.kr  <a href="http://news1.kr/articles/?3190079">http://news1.kr/articles/?3190079</a>(뉴스1)  <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6/0200000000AKR20171226102500017.HTML?input=1195m">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6/0200000000AKR20171226102500017.HTML?input=1195m</a>(연합뉴스)</p>
---	--

### 3)서울경제

서울경제	연합뉴스
<p>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 검출 세균, 주사제서도 검출</p> <p>기사입력   2017.12.26 15:47:01</p>	<p>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서 나온 균, 주사제에서도 검출</p> <p>기사입력   2017/12/26 14:40</p>
<p>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의 혈액에서 발견된 항생제 내성균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가 이들에게 투여된 주사제에서도 검출됐다.</p>	<p>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의 혈액에서 검출된 항생제 내성균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과 동일한 균이 환아들이 맞은 주사제에서도 검출됐다.</p>
<p>질병관리본부는 26일 사망 환아에게 투여된 지질영양 주사제에서 사망 환아 혈액 속 균과 유전형이 동일한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됐다며 주사 준비 단계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추정된다고 밝혔다.</p>	<p>질병관리본부는 26일 사망 환아에 투여된 지질영양 주사제에서 사망 환아에 발견된 동일한 유전형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됐다며 주사 준비 단계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추정된다고 밝혔다.</p>
<p>질본은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협조해 지질영양 주사제의 오염경로를 추가조사 진행할 예정이다.</p>	<p>이에 따라 질본은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협조해 지질영양 주사제의 오염경로를 추가조사 진행할 예정이다.</p>
<p>질본에 따르면 사망 환아는 모두 중심정맥관을 통해 지질영양 주사제를 투여받고 있었다. 지질영양 주사제는 음식 섭취가 어려운 환자에게 지방산 및 열량을 공급하기 위한 주사제다. 해당 주사제는 전체 입원 환</p>	<p>질본에 따르면 사망 환아는 모두 중심정맥관을 통해 지질영양 주사제를 투여받고 있었다. 해당 주사제는 전체 입원 환아 16명 중 5명에 투여됐고 이 중 4명이 사망에 이르렀다.</p>

<p>아 16명 중 5명에 투여됐고 이 중 4명이 사망에 이르렀다.</p> <p>다만 일본은 감염과 신생아 사망의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행 중인 검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규명할 계획이다.</p> <p>신생아중환자실에 함께 입원했던 12명의 환아에 대한 미생물 배양검사 결과, 전원된 환아 9명(퇴원아 3명 제외)에 대한 혈액배양 검사와 전체 12명의 대변배양검사에서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관련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p> <p>/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a href="http://www.sedaily.com/NewsView/1OP08W7GS2">http://www.sedaily.com/NewsView/1OP08W7GS2</a></p>	<p>다만 일본은 감염과 신생아 사망의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행 중인 검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규명할 계획이다.</p> <p>신생아중환자실에 함께 입원했던 12명의 환아에 대한 미생물 배양검사 결과, 전원된 환아 9명(퇴원아 3명 제외)에 대한 혈액배양 검사와 전체 12명의 대변배양검사에서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관련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p> <p>jandi@yna.co.kr  <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6/0200000000AKR20171226102500017.HTML?input=1195m">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6/0200000000AKR20171226102500017.HTML?input=1195m</a></p>
--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에너지경제, 서울신문, 서울경제는 2017년 12월 16일 14시40분 연합뉴스가 송고한 「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서 나온 균, 주사제에서도 검출」 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와 서울신문은 리드를 바꿨으나, 이 또한 뉴스1의 기사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1월 10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담 김용담

위	원	정	승	호	정승호
		장	명	국	장명국
		이	동	현	이동현
		장	인	철	장인철
		강		희	강희
		김	영	모	김영모
		박	현	갑	박현갑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뀌서는 안된다.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언론사와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제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예외로 하며,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